

평택항 제주물류센터 제 기능 찾을까

道, 총 4차례 입찰공고에도 결실 없어 수의계약 협의 업체 사업계획서 제출 예고… 이달 계약 성사 전망도

새로운 운영자 찾기에 고전하고 있던 평택항 제주중합물류센터가 이달 중 ‘개점휴업’ 상태를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타 지역 업체와 평택항 제주중합물류센터 사용허가에 대한 수의계약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는 추석 연휴 전에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이달 말쯤 계약 체결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10일부터 8월7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평택항 제주중합물류센터 사용허가(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

3차 때 기존 예정가격의 10%를 인하했음에도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4차 때 18% 인하(예정가격 2억7098만1160원)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운영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제주도는 연간 약 3억원(부가세 포

함)에 달하는 부지임대료를 평택항 만공사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평택항 제주중합물류센터는 2013년 국비와 지방비 등 48억3000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투입해 평택항 포승물류단지 내 1만 2193㎡ 부지에 지상 2층·지하 1층(건물 3104.9㎡)의 규모로 건립됐다. 물류센터에는 냉동실과 냉장실, 사무실, 상온집하장 등이 설치됐다.

물류센터 건립으로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수도권 소비지 직배송 체제를 구축하고,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됐지만 제주-평택항로를 오가던 카페리 운항이 중단되고 위탁업체가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표류 중이다. 오는지까지



5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13호 태풍 ‘링링’ 복상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태풍 피해 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어제 ‘道 상황판단회의’서 원 지사, 적극적 행정 주문 도내 비 피해 현장도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부터 태풍영향권에 접어들고 7일 새벽 3시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과 직결된 도민 피해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태풍 복상에 따른 비상동원 대비와 더불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

계 유지를 통해 인적·물자 동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 중이며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과 점검 활동에 나섰다.

태풍주의보 발령 시에는 비상Ⅱ단계 근무로 돌입해 13개 협업 부서와 재난상황 안내·전파를 비롯해 ▷자원봉사 지원 ▷항공기 결항 체류객 관리 ▷재해 취약지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찰 ▷저류지·상하수도시설 점검 ▷대중교통 운행상황 점검 및 교통흐름 관리 ▷현장 응급의료소·방역가동반 등을 운영하며 위험

요인에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태풍 복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며 “추석절을 앞두고 집중 호우 피해에 대응 우려까지 겹친 가운데 민심과 농심의 아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 직후 세화리와 대정읍 지역을 방문해 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동·서부지역 조합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특정품목 과일 생산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 지원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68년간 쓴 영농일기, ‘제주 감귤역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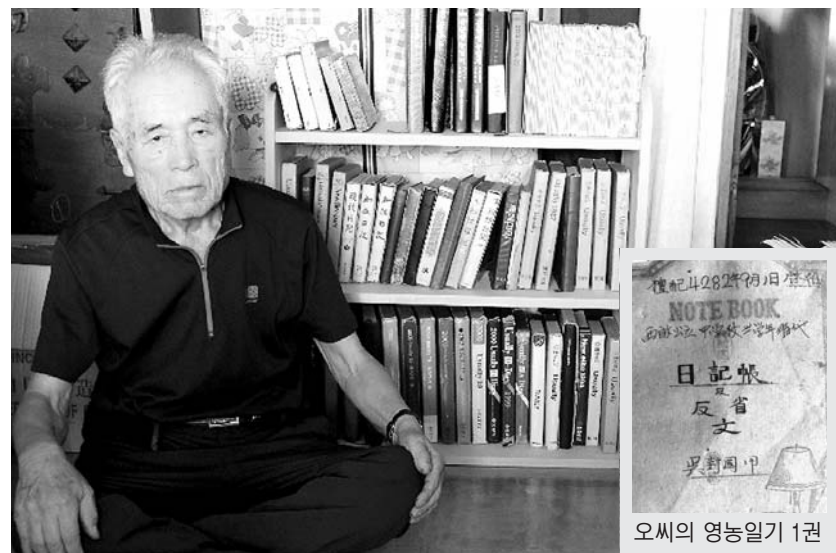
제주감귤 1세대 오봉국씨

농사 시작 1949년부터 쓴 일기 63권 박물관에 기증 “군 생활 빼곤 매일 써… 혼자보다 함께 봤으면”

감귤전문 영농일기 첫 공개 “산업 발전 검토 가치 커”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로부터 감귤나무 2그루를 받아 키우기 시작했다. 보리와 조 농사를 짓던 3300㎡의 밭을 과원으로 만들어갔는데 당시 감귤나무 접수도 귀하고, 묘목도 없어 접붙이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관련 지식이 없어 외롭고 힘들었다. 하지만 감귤 1관이면 감자 25관으로 바꿀 수 있을만큼 돈이 되는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감귤농사로 집을 짓고 밭도 늘렸으며, 5남매를 공부시켰다.”

서귀포시 토평동 오봉국(87)씨가 감귤농사를 지으며 194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68년 동안 일기 형식으로 쓴 감귤영농일기 63권을 감귤박물관에 기증한다. 영농일기 기증은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이 진행 중인 감귤1세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조사 과정에서 오씨가 기증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일기는 과원 순시에서부터 그



68년 동안 감귤 영농일기를 써온 서귀포시 토평동 오봉국씨. 오씨가 앉은 뒤쪽으로 영농일기가 빼곡하게 꽂혀있다. 사진=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제공

날의 날씨, 농산물품 구입, 방재, 시비, 제조작업, 수확, 저장, 판매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오씨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일기야말로 개인의 역사가 된다’며 써볼 것을 권유해 시작했는데 군생활 3년을 제외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썼고 대부분이 감귤에 대한 내용들”이라며 “집에 두고 혼자 보는 것보다 감귤박물관에서 여럿이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감귤박물관 학예사는 “68년에 걸쳐 작성 중인 오봉국 선생의 일기가 감귤 전문 영농일기로는 최초로 공개된 사례”라며 “1960년 전후 시기 제주의 생명산

업인 감귤산업 발전의 실재를 검토하는 데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한 집안의 일생의 레, 의식주 생활사, 서귀포시 토평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의 단상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민속학적으로도 귀중한 자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씨의 감귤영농일기 기증행사는 6일 감귤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희훈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장은 “지역주민들이 기증하는 소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활용하고, 기증자를 예우해 앞으로 도 유물 기증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서귀포과학문화축전 연기

서귀포시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따라 오는 7일 서귀포시 천문과학문화관에서 개최 예정이던 ‘2019 서귀포과학문화축전’을 이달 28일로 연기로 열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서귀포과학문화축전은 ‘대양계 행성을 만나는 즐거운 과학체험’을 주제로 서귀포시와 제주융합과학교육연구회(회장 고옥선)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천문연구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반개과학체험관이 참여한다.

서귀포시 지역 학교 과학동아리들이 12개의 다양한 과학체험부스를 운영하며 과학마술공연, 전파천문학강연, 에어로켓·오르니토퍼 만들기, 천체관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교통량 줄이기 실천, 꼼꼼히 살핀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앞둔 제주시, 기업 90여곳 등 점검

제주시는 오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달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행계획 추진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계획은 시설물에 유발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소유자를 중심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가 함께 동참하는 프로그램으로 9가지 항목, 16개 이행사항으로 돼 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는 8월 말까지 추가 접수한 결과 총 129개소로 민간기업체 92개소,

공공기관 37개소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선 기업체가 신청한 감축 계획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기업체 여건에 맞는 감축 계획을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함께 진행한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는 최소 이행사항 10%를 달성하고 6개월 이상 참여해야 하며, 분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교통량 감축에 따른 감면 비율은 제주도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이행실적을 검토해 결정하며, 2020년 10월에 최종 부과액이 확정된다. 부과대상액은 지난 8월말 기준 1997개소·59억원이다. 고대루기자

전액무료 매일최대 400,000 지급
순시·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 상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11월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할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 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국비지원 ※회계 입문단계부터 강의합니다※

세무회계 자격증(FAT1급/전산회계1급) 취득과정

대 상	직장인/재직자/실업자/구직자/매출1억5천미만사업자
교육기간	10/7 ~ 12/30
교육시간	월 화 수 목(주4회) 19:00~21:50
교육내용	세무회계 자격증 취득과정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 749-3434
jejujw.com

※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소 ● 국제보청기(국제보청기점) ● 한라체육관 ● 일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실생 특요 정식 할 수 있는 요목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 혜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하래조생	3년생
탱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래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요목 접수 판매(1년생 요목 접수만 취급)
★ 모든 요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